

BNK금융, 내년 분기배당 도입·50% 이상 주주환원 약속

〈2027년까지〉

2024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위험가중자산 비중 4% 이내 관리
건전성 안정적 유지 속 성장 도모
보통주자본비율 목표치 12.5%
지역특화산업 투자로 동반 성장

BNK금융그룹이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과 '지역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목표를 추진한다.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지역 내 주요 금융기관으로 지방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부울경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BNK금융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BNK금융은 지난 10월30일 3분기 실적발표 및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다. 3분기 누적 순익(연결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억원(6.1%) 늘어난 7051억원을 기록했다. BNK금융은 '밸류업'과 '지역 동반 성장'에 기반한 경영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BNK금융은 '2024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6.4% 수준에 불과했던 자기자본수익률(ROE) 10%대를 기록 중인 자기자본비용(COE)을 넘는 수준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다.

/BNK금융

까지 끌어올리고, 위험가중자산(RWA) 비중을 4% 이내로 관리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성장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이어 주주환원을 위한 CET1(보통주 자본비율) 목표치로는 12.5%를 제시했다. 올 3분기 기준 BNK금융의 CET1은 12.31%로, 목표치를 앞두고 있다.

권재중 BNK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기 CET1 목표를 12.5%로 설정하고, 주당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을 최대화하겠다"라며 "2027년까지 50% 이상의 주주환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년

내에 분기 배당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권 CFO는 "현재 BNK금융은 반기 배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주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분기 배당을 준비 중"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큰 골격은 DPS(주당배당금)의 우상향으로, 분기 배당도 균등 배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영업 확대 전략으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침체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타지방금융 지주가 지역소멸에 따른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거점지역 내 영업 비중을 줄이는 것과는 대비된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월 초 '지역에 기반한 초일류 글로벌 금융 그룹'이라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부울경 지역 내에서 입지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회장직속기구 '지역상생ESG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부울경 지역만의 ESG 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이어 7월에는 지역 산업에 특화된 전문가 육성 과정인 'BNK IB금융가 과정'을 그룹 내에 신설해 가동 중이다.

이어 지난 8월 말에는 '지역 동반 성장 선언문'을 발표하고 가덕 신공항 인프라 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 보증 확대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공개해 추진 중이다.

BNK금융은 거점지역 내에 중점을 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수익 모델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영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권 CFO는 "(국내 총생산의) 16% 수준의 셰어를 차지하던 부울경 지역이 현재는 14% 정도만 차지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다만 영업 기회는 다른 부분으로, BNK금융은 지역 내에서 상품과 영업을 다양화해 성장 기회를 포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손해보험 본사 로비에서 구분옥 KB손해보험 사장(왼쪽)이 행사에 참여한 여성에게 난소 나이 자가검사 진단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저출생 문제해결 앞장 난소건강 알기 캠페인

KB손해보험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

KB손해보험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난소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출산과 가족계획을 미리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사회공헌 사업이다.

'난 소중해, 난소 중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오는 11월 15일까지 KB손해보험 모바일 앱에서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난소건강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고 소감을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00명에게 '난소 나이자가진단 키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난소 건강은 여성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할 수 있다"며 "이번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베트남 금융인재 초청 디지털금융 혁신 전파

한화생명이 베트남 금융인재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베트남의 ICT 국립대인 '한베ICT대학교'의 학생 20명과 교수진 5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연수 첫 날 참가자들은 다양한 핀테크 전문가들과 만나 한화의 디지털 금융 및 AI 서비스 사례와 한국 기업들의 핀테크 혁신 사례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0일에는 용인에 위치한 한화생명의 기업 연수원 '라이프파크'에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금융과 기술 융합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31일에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학과와의 교류행사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과 지식을 나누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저축은행 업황 개선에도 인수합병은 '시기상조'

한화생명, 한화저축은행 인수 현재 매물 상상이나 5곳 남아 건전성 제고가 매각 분수령

한화저축은행의 매각이 성사되면서 침체된 M&A(인수합병)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올 3분기 저축은행권이 순이익을 거둔 만큼 긍정적인 신호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화생명은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장외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1985억원으로 1주당 2898원에 6160만주를 매수했다. 한화생명은 손해보험, 증권, 운송사에 이어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추가하며 금융계열사 지배구조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수신 기능이 있는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계열사 간 상호 시너지를 기대할 전망이다.

한화저축은행의 매각은 4년만에 나

온 저축은행 인수합병 사례다. 지난 2020년 우리금융그룹이 아주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주저축은행을 함께 사들였다. 그간 금융당국이 업황 부진에 빠진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여러 차례 빼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성과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 업황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파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한 데다 올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NPL(부실채권)을 털어내면서 건전성도 높였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그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입하면서 순이익이 늘었다.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상상인·애큐온·HB·OSB·대원저축은행 등 5곳이다. 업계에서는 건전성 제고 여부가 향후 매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엔 한화생명이 품은 한화저축은행의 BIS(국

제결제은행)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5.50%로 직전 분기 대비 2.37%포인트(p) 개선됐으며 상반기 순이익은 47억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화금융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예고되는 금융사를 무턱대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저축은행권에서는 인수합병 활성화를 놓고 물음표를 던졌다. 기준금리가 떨어졌지만 조달비용은 오르는 추세며 리테일(소매금융) 반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아울러 3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가결산 결과인 만큼 진짜 뚜껑은 열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도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에 속도가 붙진 어려울 전망이다. 여전히 업황 회복 단계인 만큼

HDC현산, 서울원에 메리어트 호텔 도입

서울 동북권 첫 5성급 브랜드 호텔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일 메리어트와 '서울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복합건물 내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 도입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원 내 들어설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로 현재 제주와 대구에서만 운영 중이며, 서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이다.

서울 동북권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5성급 브랜드 호텔로 12~15층까지 4개 층에 걸쳐 연면적 약 880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메리어트 서울원은 200여 개의 객실과 3개의 레스토랑, 야외 이벤트 테라스, 인도어 풀 등으로 구성된다.

웨딩을 비롯한 각종 연회를 위한 500여 명 규모의 실내 볼룸 및 야외 이벤트 테라스가 마련될 계획이다. 인근



메리어트와 '서울원' 복합건물 내 프리미엄 브랜드 호텔 도입을 위한 본계약 체결 후 이성용 호텔HDC 대표(왼쪽부터),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피터 가스너(Peter Gassner)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태평양 개발 총괄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12개 대학 교수진 중심의 대학행사와 세미나, 기업 비즈니스 미팅룸도 함께

구성된다. 호텔 위탁운영은 호텔HDC가 맡을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